

이집트 신정부 수립 100일 이후 경제 및 진출환경 전망



CONTENTS

목 차

요 약 / 3

I. 2012 대선 이후 이집트 정세 / 4

- 1. 대선 이후 이집트 정세 / 4
- 2. 신정부의 외교정책 및 대외활동 / 8
- 3. 신정부의 당면과제 / 9
- 참고 1. 2012 이집트 대선 최종 결과 / 11
- 참고 2. 무르시 대통령 주요 경력 / 12

II. 신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 13

- 1. 주요 경제정책 방향 / 13
- 2. 대외경제협력 / 15

III. 대선 이후 이집트 경제 및 진출환경 전망 / 21

- 1. 이집트 경제 동향 / 21
- 2. 진출환경 전망 (무역, 투자, 지역개발) / 25
- 3.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의 진출환경 전망 / 34

IV. 시사점 / 36

요 약

- 2012년 6월 24일 이집트 민주화 운동 이후 첫 대선 결과 발표.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당선
- 무르시 대통령은 7월 24일 히삼 칸딜 총리 지명과 함께 8월 2일 35개 부처 내각을 구성하여 발표. 8월 12일 이집트 군최고위원회(SCAF)가 6월에 발표한 임시헌법을 폐지하고 신 헌법선언, 군부 주요인사를 해임 등 군부에 분점된 정권을 신정부로 집중
 - 향후 신 헌법제정과 하원선거 진행상황과 결과가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무르시 대통령은 사우디, 중국, 이란, EU, 미국 등 활발한 방문외교를 추진,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
 - 아프리카연맹, 이슬람협력기구, 아랍연맹 회의 참석을 통해 이집트 정부의 대외 위상을 재확립
-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이슬람 금융 도입 및 보조금 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완화, ▲해외투자유치와 자국 산업 육성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및 노동집약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 산업 개발 중심으로 추진
 - 지역개발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카이로-알렉산드리아 고속철도 건설, 카이로 메트로 연장, 수에즈 산업단지 개발, 전력 인프라 확충, 담수화 플랜트, 항만 확장 프로젝트 등 추진을 계획
- 민주화 운동 이후 수립된 첫 민주정부로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로부터 15억 달러, 8월 중국 방문시 양국 공동사업을 위한 7,000만 달러 무상원조를 받음
 - 이집트 정부는 8월 IMF 총재 방문시 48억 달러의 차관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현재 차관 제공 협상 중
- 무르시 정부는 민주화 운동으로 악화된 치안 확보와 경제 재건에 주력하고자 하며, 산업 육성, FTA 체결, 투자환경 개선 등 대외개방 경제정책 가시화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정부 주도 프로젝트 추진시 자금 조달의 제약으로 민관합동투자(PPP) 방식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I

2012 대선 이후 이집트 정세

1. 대선 이후 이집트 정세

□ 최근 이집트 정세

- 2011년 1월 민주화 운동 이후 17개월의 과도기 동안 이집트는 극심한 치안 불안 및 경제침체를 겪음
- 무르시 대통령 당선직후 군부와의 권력 분점 및 마찰 등이 정세 불안요소로 우려되었으나, 신 헌법 선언을 통해 무르시 정부로의 권력 집중화가 추진
 - 반면, 이슬람과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미국 영화인 '무슬림의 순진함 (Innocence of Muslims)'으로 반미시위가 촉발되면서 이집트의 對美 관계 악화가 다른 불안요소로 작용
- 무르시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 사회 안정 및 경제 재건을 목표로 교통, 치안, 에너지, 식량, 환경문제를 5대 과제로 거론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하는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향후 이집트 정세는 신헌법 제정과 총선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 내각 구성 및 대통령 위원회 발족

- 7월 1일 무르시 대통령 취임이후 군부와의 권력 분점 및 무슬림형제단과의 관계 등에 의해 내각 구성이 상당기간 지연
- 무르시 대통령은 7월 24일 히삼 칸딜(Hisham Kandil)을 총리로 지명, 8월 2일 총 35개 부처의 내각을 발표
- 8월 27일 대통령 보좌역(Assistant) 4명과 자문단(Advisory) 17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위원회(Presidential Team)를 발표

- 보좌역에는 누르(Nour)당의 압델 가푸르(Abdel Ghafour) 당수, 무슬림형제단의 이삼 하다드(Essam Hadad) 고위 간부, 콥트 기독교와 여성 대표 각각 1명이 임명되었으며, 자문단은 무슬림형제단 간부 출신 5명, 누르당 2명, 언론인 4명, 이슬람주의 인사 및 제헌의회 위원 등으로 구성
-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대통령 위원회의 발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보좌역 3명과 자문역 10명이 이슬람주의 인물이라는 점에 불만을 표출

□ 군 수뇌부 전격 경질 조치 및 신헌법선언

- 무르시 대통령은 8월 12일 모하메드 후세인 탄타위(Mohamed Hussein Tantawi) 군 최고위원장(국방장관 겸임)과 사미 아난(Sami Anan) 육군 참모총장 등 군부 핵심 간부를 전격 경질하는 한편, 군 최고위원회 (SCAF)의 임시헌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 헌법선언을 발표
- 신 헌법선언 주요 내용
 - ① 임시헌법의 폐지 ② 2011년 3월 발표된 헌법선언 제56조의 주체를 ‘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 교체 ③ 제헌회의가 신헌법 제정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헌회의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 모하메드 후세인 탄타위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대통령 자문관으로 임명,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ah Al-Sissy) 군 정보부장을 후임 국방장관으로 임명
 - 사미 아난 군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대통령 자문관으로 임명, 소브히 사이드 아흐메드(Sobhy Sayed Ahmed) 제 3 야전군 사령관을 후임 군 참모총장으로 임명
 - 알리 사브리(Aly Sabry) 방산물자부 장관을 해임하고 하피즈 모하메드 압델마지드(Hafwz M. Abdelmeged) 공군 총사령관을 임명
 - 그밖에 해군 총사령관, 방공군 총사령관, 국방부 차관 등을 경질하고, 아흐메드 메키(Ahmed Mekki) 대법원 판사를 부통령에 임명
- 신 헌법선언을 통해 무르시 정부는 군부와의 권력 분점 체제에서 벗어나 군 최고위원회에 부여된 입법권, 예산권, 군 통수권 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

[이집트 내각 구성 현황 ('12.8.2)]

연번	직 책	성 명	비고
1	총리 (Prime Minister)	Hisham Kandil	신임
2	외교부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ohamed Kamel Amr	유임
3	국방부장관 (Minister of Defense)	Abdel Fatah Al-Sisi	신임
4	내무부장관 (Minister of Interior)	Ahmed Gamal Eddin	신임
5	재무부장관 (Minister of Finance)	Mumtaz El Said	유임
6	법무부장관 (Minister of Justice)	Ahmed Mekky	신임
7	교육부장관 (Minister of Education)	Ibrahim Ahmed Gonim	신임
8	공보부장관 (Minister of Media)	Metwaly Abdel Maksoud	신임
9	문화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Saber Arab	신임
10	관광부장관 (Minister of Tourism)	Hisham Zaezou	신임
11	종교재산부장관 (Minister of Religious Endowments(Awakaf))	Talaat Afify	신임
12	전력에너지부장관 (Minister of Electricity and Energy)	Mahmoud Balbaa	신임
13	산업통상부장관 (Minister of Industry and Foreign Trade)	Hatem Saleh	신임
14	정보통신부장관 (Minister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ni Mahmoud	신임
15	주택부장관 (Minister of Housing, Utilities and Urban Communities)	Tarik Wafik	신임
16	석유부장관 (Minister of Petroleum)	Osama Kamal	신임
17	방산물자부장관 (Minister of State for Military Production)	Reda Mahmoud Hafez	신임
18	기획국제협력부장관 (Minister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hraf El-Araby	신임

19	민간항공부장관 (Minister of Civil Aviation)	Samir Embaby Metwaly	신임
20	환경부장관 (Minister of State for Environment Affairs)	Moustafa Hussein Kamel	신임
21	사회복지부장관 (Minister of Insurance and Social Affairs)	Nagwa Khalil(女)	유임
22	조달국내무역부장관 (Minister of Supply and Domestic Affairs)	Mohamed Abou-Zeid	신임
23	고등교육부장관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Mustafa Mosaad	신임
24	보건부장관 (Minister of Health and Housing)	Mohamed Mustafa	신임
25	교통부장관 (Minister of Transportation)	Mohamed Rashad El-Matiay	신임
26	농업부장관 (Minister of Agriculture and Lands, Cultivation)	Saleh Abdel-Moamen	신임
27	노동이민부장관 (Minister of Manpower and Immigration)	Khaled El-Azhary	신임
28	수자원관개부장관 (Minister of Water Resources and Irrigation)	Bahaa El-Din	신임
29	과학연구부장관 (Minister of Scientific Research)	Nadia Zakhary(女)	유임
30	문화재부장관 (Minister of State for Antiquities)	Mohamed Ibrahim Ali Said	유임
31	지역개발부장관 (Minister of Local Development)	Ahmed Zaki Abdeen	신임
32	의회담당장관 (Minister of People's Assembly and Shura Council Affairs)	Mohamed Mahsoub	신임
33	청소년부장관 (Minister of Youth)	Osama Yassin Abdel Wahab	신임
34	체육부장관 (Minister of Sports)	Al-Amary Farouk	신임
35	투자부장관 (Minister of Investment)	Osama Saleh	신임
36	식수위생부장관 (Minister of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Abdel-Qawi Khalifa	신임

2. 신정부의 외교정책 및 대외활동

□ 외교 정책

- 아랍지역에서 이집트의 위상과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예상됨
- 아랍지역의 안보 강화와 이슬람 국가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란과의 관계 개선 및 이스라엘 평화조약 유지에 대한 대외정책에 변화가 전망됨
 - 무르시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이 이집트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나, 동 조약의 폐지 여부는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밝힘에 따라, 평화조약 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음
- 이집트 민주화 운동이후 출범한 첫 공식정부로 국제사회에서 환영을 받는 만큼 향후 국제기구와 관계 강화 및 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국과 협력을 지향하는 대외관계의 다양화 및 전략적 균형이 기대됨

□ 대외 활동

- 무르시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이집트의 위상 강화와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 확보를 위해 방문 외교를 활발히 전개
 - 사우디아라비아(7.11~12) : 양국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 원조 확보
 - 에티오피아(7.15~16) : 아프리카 연합(AU) 정상회의 참석
 - 사우디아라비아(8.14) : 이슬람협력기구(OIC) 정상회의 참석,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4개국(터키, 사우디, 이란, 이집트) Contact Group 회의 제안
 - 중국(8.27~29) : 양국 우호 증진 및 경제 협력
 - 이란(8.30) :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 브뤼셀(EU) 및 이태리(9.13~16) 순방
 - UN 총회 및 미국(9.24~27), 브라질(9.27~29), UAE, 독일, 프랑스, 터키, 스페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 순방 계획
- 무르시 대통령은 AU, 비동맹, OIC 정상회의, 아랍연맹회의(카이로) 참석을 계기로 서방 지향적인 과거의 대외관계에서 탈피하여 국익과 균형을 고려한 외교정책 추진과 국제평화를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3. 신정부의 당면 과제

□ 신헌법 제정

- 2012년 5월 정치세력 간의 합의에 따라 상·하원은 2차 제헌회의를 발족시켰으나, 6월 14일 이집트 최고헌법재판소는 하원 해산 판결을 내림
- 2012년 3월 1차 제헌회의가 구성되었으나, 이슬람 세력이 과도하게 점유(총 100명의 위원중 70% 이상을 차지)하였다는 국민들의 반발과 행정법원의 해산 명령으로 해체됨
- 현재 동 제헌회의의 해산 법정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헌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무르시 대통령은 신 헌법선언을 통해 제헌회의가 헌법제정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제헌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힘
- 신헌법 제정의 주요 쟁점 사항
- 최고헌법재판소(SCC)를 종전과 같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둘 것인지, 사법부의 체계 속에 둘 것인지 여부
- 헌법 2조의 개정 여부에 대하여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법(Sharia)’이 입법의 주요 원천(Sources)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세속주의자들은 ‘이슬람법(Sharia)의 원칙(Principles)’이 입법의 주요 원천이라는 종전의 규정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대립
- 주지사를 행정부 수장(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으로 할 것인지, 주민 선거에 의한 선출직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의회 선거법 관련, 노동자 및 농민 대표의 의석 할당제 비율이 종전의 50%에서 다소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

□ 하원 선거 실시

- 이집트 최고헌법재판소의 하원 해산 판결 이후 무르시 대통령은 7월 8일 하원 재소집 포고령을 발표하여 한때 하원이 소집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동 포고령 위헌 판결에 따라 하원 소집이 재차 중단
- 민주화 운동 이후 정부수립 일정상 의회 선거 후 헌법 제정 수순이었으나, 현재는 신헌법 제정 후 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신헌법의 내용에 따라 의회 선거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
- 지난 의회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경험한 야권 세력(세속자유주의, 좌파 및 나세리즘, 급진 개혁주의 등)은 향후 의회 선거에 대비하여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 야권 동맹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

[주요 야권 연합 세력]

연합 세력	개요
National Front	■ 좌파 및 나세리즘 연합 ■ 사회 정의 및 아랍민족주의 성향으로 대선에서 3위를 차지한 함딘 사바히(Hamdeen Shabahi)를 중심으로 결집 ■ 이집트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인민동맹당 등
Egyptian Nation	■ 자유시장경제 및 세속주의 연합 ■ 전통적 야당인 와프드(Wafd)당과 前아랍연맹 사무총장인 아므르 무사(Amr Moussa, 대선 5위)를 중심으로 형성
National Congress	■ 20개 군소 정당 연합 ■ 알-가드(Al-Ghad)당 당수인 아이만 누르(Ayman Nour)를 중심으로 결집
United Revolution Front	■ 군소 사회개혁 정당 및 공산주의 정당 연합 ■ 급진 사회주의 리더인 카만 칼릴(Kamal Khalil)이 주도
Misr Al-Qaweya	■ 중도 온건 이슬람 세력 ■ 대선에서 4위를 차지한 아불 파투흐(Abul Fotouh)를 중심으로 강한 이집트 건설을 목표 ■ 알-와사트(Al-Wasat)당, 이집트 미래당 등

- 2013년 1월경으로 예상되는 하원 선거에서 이슬람 세력과 연합 세력의 의석 차지가 향후 정국 동향의 변수가 될 전망

참고 1. 2012 이집트 대선 최종 결과

-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화 운동 이후 수립되는 이집트 신정부의 대통령으로 무슬림형제단 출신 무함마드 무르시(61세)의 당선을 공표
 - 대선 결과는 6.21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결과를 두고 무르시와 샤피크 양 진영에서는 승리를 주장하였고, 400건 이상의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등 결과를 가리기 위해 잠정 연기되었다 6.24일에 공식 발표됨

[대선 후보별 득표율(결선투표)]

순위	후보명	득표율(득표수)
1	무함마드 무르시 (무슬림형제단)	51.7% (13,230,131)
2	아흐메드 샤피크 (前총리)	48.3% (12,347,380)

자료원 :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l-Jazeera

- 결선투표 참여율 51%, 유권자 26,420,763명 중 기권표 843,252명 집계
 - 결선투표에 민주화 운동 세력 및 중도층을 대변하는 후보들이 모두 탈락하고 이슬람주의 정당인 무슬림형제단과 前무바라크 정권의 총리이자 군부 출신 후보들 간 대결로 이어져 기권자들이 상당수 발생

[대선 후보별 득표율(1차투표)]

순위	후보명	득표율(득표수)
1	무함마드 무르시 (무슬림형제단)	24.4% (5,764,952)
2	아흐메드 샤피크 (前총리)	23.3% (5,505,327)
3	함딘 사바히 (나세리즘의 좌파 성향)	20.4% (4,820,273)
4	아불 포투후 (무슬림형제단)	17.2% (4,065,239)
5	아무르 모사 (前아랍연맹 사무총장)	10.9% (2,588,850)

자료원 : 이집트 국영 언론매체(Al-Ahram),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종합

참고 2. 무르시 대통령 주요 경력

□ 인적사항

성명	무함마드 무르시(Mohamed Morsi Isa El-Ayyat)	
생년월일	1951. 8. 20 (61세)	
학력	1982 Univ. of Southern California 공학 박사 (Rocket Science) 1978 카이로대학교 금속공학 석사 1975 카이로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주요경력	2011. 4.30 자유정의당 대표 2000~2005 무슬림형제단 의회 담당 대변인 1995~2000 이집트 하원 의원 1985~2010 Zagazig 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 겸 학과장 1982~198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	

□ 과거 주요 행적 및 성향

○ 민주화 혁명 이전

- 1979년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1992년부터 정치국 멤버로 활동, 1995년 무슬림 형제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도국(Guidance Bureau) 위원으로 선출
- 2000~2005년 무슬림형제단의 의회 대변인으로 활동, 이후 공식 대변인으로 활약
- 2006년 부정선거 시위를 주도한 개혁주의 세력 지지 혐의로 구속, 7개월간 복역
- 2007~2011년 무슬림형제단과 무바라크 정권의 정보기관간 연락책(liaison) 담당
- 무슬림형제단을 대표하여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
 - * 2004년 Kefaya 운동의 공동 창설자였으며, 2010년 엘-바라데이 前 IAEA 사무총장과 "변화를 위한 국민연대(The National Assembly for Change)" 활동에 참여

○ 민주화 혁명 이후

- 2011년 4월 30일 무슬림형제단이 창설한 자유정의당(FJP)의 당수로 취임
- 2011년 11월 총선에 대비하여 와프드(Wafd)당 등 다수의 정당과 동맹을 구성
- 자유정의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무르시 후보의 입지가 크게 강화
- 과도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군 최고위원회와도 빈번한 대화 채널 유지

1. 주요 경제정책 방향

□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 재정정책

- 공공채무를 매년 15%씩 축소하고 2016년까지 재정적자를 6% 이하로 축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특별기금의 통폐합, 보조금 개혁, 자카트(Zakat) 등 이슬람 개념의 도입을 지지
- 외환보유고 부족 해소방안으로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외환 차입을 지지하기보다는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유입을 장려

○ 금융정책

- 중앙은행의 독립, 물가안정, 파운드화(EGP) 환율 유지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정부채권의 대안으로 수쿠크(이슬람 채권)와, 이슬람 금융제도 등을 적극 도입

○ 통상정책

- 수출 증가율 연 20% 이상을 목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와 특별자유구역(SEZ) 설정 등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

○ 고용정책

- 2016년까지 실업률 7% 미만을 목표로 최저임금 설정, 실업기금 운영, 직업훈련 확대,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 GDP 30% 수준으로 정부 투자 확대를 계획
- 외국기업의 이집트내 비즈니스 활동시 현지 노동력 활용 등의 요구가 강화될 전망

○ 복지정책

- 2016년까지 건강·의료 예산을 12% 늘려 의료 및 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

○ 지역발전 및 인프라 정책

- 주(州)정부 차원의 산업별 약 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
 - * 파이음주 소금산업, 동부나일주 시멘트산업, 소하그주 비료산업 등 17개 사업
- 지역별 개발 청사진 제시 : 북서연안(자원·관광), 시나이(자원·산업단지 조성), 이스마일리아(첨단기술), 포트사이드(물류기지), 사파가(광물항), 다미에타(항만 확장), 알렉산드리아(관광용 항만 터미널 운영)
-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전력·에너지 분야에 매년 40억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교통 분야 발전정책을 제시하고 교통 인프라의 확대를 강조

□ 이집트 경제발전 모델

- 신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실현을 위해 터키와 말레이시아 경제를 벤치마킹 모델로 설정하고 논의 중에 있음
- 터키식 경제모델은 대외개방적이고 수출지향적 경제라는 점에서, 말레이시아식 경제모델은 이슬람 금융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고려 대상이 됨
 - 두 경제모델 모두 형평성과 교육을 중요시하며, 터키식 경제모델은 터키가 주요 수출국으로 발전하는 한편, 군사력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 독재위험을 감소시켰다는 것이 특징
- 이집트 경제전문가들은 무르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근거로 신정부가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두가지 모델 모두 이집트 경제에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임
 - 하지만 이슬람 금융의 도입이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며, 이집트 경제 활성화의 보완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보조금제도 개편 추진

- 보조금 지원은 이집트 정부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
 - 2011/2012년 보조금 집행 총액은 약 218억 달러로 이 중 72%가 연료비(디젤, 가스 등) 보조금이며, 빵 보조금은 8%, 생필품 보조금은 6%를 차지

- 히삼 칸딜(Hisham Qandil) 총리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9월초 보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
 - 1단계 조치로 10월중 부탄가스 배급제 또는 스마트 카드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 제도 정착시 연간 40억 파운드(EGP) 절감이 기대
 - 향후 수개월내 가솔린, 전기, 상수도, 빵 보조금도 삭감 추진 예정
- 이집트의 보조금 제도는 60년 이상 장기화되어 왔으며 서민들이 보조금 삭감 이후 생활고를 견뎌 낼 수 있을지 여부가 제도 개편의 성패를 좌우
 - 이집트 국민의 40%가 절대빈곤층에 속하며, 과거에도 보조금 제도 폐지가 수차례 시도되었다가 무산됨
- 일각에서는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 추진이 IMF 자금지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2. 대외경제협력

□ 이집트 정부의 대외 경제 협력 및 투자 유치

①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 재무부에 따르면, 이집트 민주화 운동 이후 이집트 과도정부에 지원하기로 한 무상원조 40억 달러 중 15억 달러가 제공됨
 - 사우디 정부는 2011년 말 5억 달러 제공후 2012년 5월 이집트 중앙은행에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향후 이집트 개발 사업에 5억 달러,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2억달러를 제공할 예정
- 2012년 9월 10일 사우디 투자자 및 사업가 50여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이 이집트를 방문하여 경제 부처 관계자들과 對이집트 경제 지원 및 투자에 대해 논의
 - 지원금 15억 달러 중 국가예산 지원에 10억 달러, 개발 사업 5억 달러가 편성됨

② 중국

- 무르시 대통령은 80여명의 기업인 사절단을 구성하여 8월 28~30일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주석, 시진핑 부주석, 원자바오 총리와 면담시 양국 경제 협력 및 투자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 금번 정상회담시 중국은 인프라, 전기, 환경 분야에서 양국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4억 5,000만 위안(약 7,000만 달러)을 이집트에 무상 지원키로 하였으며, 약 2억 달러의 차관 제공을 포함한 8개의 경제협력 협정 체결

[이집트-중국 정상회담 주요 성과]

- 무르시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경제부처 장관 7명과 기업인(방산분야 포함) 80여명의 사절단 구성, 중국 기업인들과 함께 對이집트 투자 사업에 대해 논의
- 무르시 대통령은 8.28(화)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에서 이집트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중국의 對이집트 투자 및 양국 교역 확대를 요청
- 중국정부는 인프라, 전기, 환경 분야의 양국 공동사업을 위한 4.5억 위안 무상원조와 중국개발은행의 2억달러 차관(3년 거치, 8년 상환, 이자율 4% 내외) 제공을 결정
- 9월 1일 오사마 살레흐(Osama Saleh) 투자부 장관은 무르시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체결한 50억 달러 투자협정의 일환으로 수에즈 북서부 공단 조성 사업이 2012년 말 실행될 예정이며, 기술, 화학, 신재생에너지, 제약, 전기, 방직, 담수화 분야를 주요 사업 분야로 언급
- 이집트와 중국간 교역량은 2011년 88억 달러(수출 51억, 수입 37억)로 2008년에 비해 40% 증가하였으며, 이집트 정부는 무르시 대통령의 금번 중국 방문 효과가 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평가

③ 카타르

- 히삼 칸딜 총리는 9월 6일 하마드 빈 자심 알-타니(Hamad bin Jassim al-Thani) 카타르 총리와의 공동 언론 회견에서 카타르의 對이집트 투자사업 계획을(총 180억 달러) 발표

- 칸딜 총리는 카타르 정부가 향후 5년간 이집트 수에즈 북부 지역 천연가스, 전력, 철강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80억 달러, 북부 지중해 연안 지역 관광 리조트 설립 사업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
-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Hamad bin Khalifa al-Thani) 국왕은 8월 초 이집트를 방문, 무르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집트 정부에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 제공하기로 협의
- 카타르 정부는 8월 말 이집트에 5억 달러의 경제 원조금을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15억달러는 9~11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제공될 예정

④ 미국

- 미국 정부는 이집트에 연간 15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관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탕감하기 위한 최종 협상이 9월 중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내용의 미국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 (Innocence of Muslims)'으로 촉발된 이집트내 반미시위 및 미국 대사관 공격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對이집트 경제지원 협상 중단을 결정
- 9월 4일 이집트 경제 재건을 위한 미국 무역사절단(120여명)의 현지 투자 논의도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미국의 對이집트 민간투자도 불투명한 상태
- 반미시위와 현지 치안불안으로 인해 미국의 對이집트 지원 협상이 일시 연기된 것이며, 미국의 이집트 지원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9월 18일 워싱턴포스트는 이슬람권의 반미시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초 예정된 대선 전까지 이집트 지원 정책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⑤ EU

- 2012년 5월 캐서린 애쉬튼 EU 외교정책대표는 EU가 이집트의 민주정권 이양 및 인권 보호를 위해 2,000만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했다고 발표

- 9월 13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무르시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시 공동 언론 회견에서 이집트와 IMF간의 차관협상이 타결된다는 조건하에 5억 유로의 지원금을 이집트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집트의 예산 지원 및 경제 재건을 위해 약 2억 유로의 추가 지원금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 9월 18일 모하메드 카멜 아므르(Mohamed Kamel Amr) 이집트 외무장관은 프랑스가 이집트 지하철 노선 신설을 위해 3억 유로(약 3억 9,0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

⑥ 터키

- 9월 15일 이삼 알-하다드(Essam El Haddad)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역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알리 바바칸(Ali Babacan) 터키 부총리를 만나 자금지원 협정에 서명
- 몸타즈 알-사이드(Momtaz El-Saeed) 이집트 재무장관은 터키가 이집트의 인프라 사업 및 외환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

⑦ UAE

- 2011년 10월 UAE 정부는 이집트에 30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나, 제공 방식이 여전히 논의 중에 있음

⑧ 일본

- 일본정부는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4호선 건설 비용 25억 8,000만 달러의 50%인 12억 9,000만 달러를 유상 저리차관으로 지원하기로 발표
- 또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이집트 정부가 2027년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이집트 교통부와 JICA는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 우선순위를 포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 주요 국제기구의 對이집트 원조 동향

① 국제통화기금(IMF)

- 9월 19일 IMF는 성명을 통해 2012년 말까지 이집트 차관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
 - 성명에 따르면, 이집트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는대로 IMF 실무팀을 카이로에 파견하여 자금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이집트 정부는 8월 21~22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카이로 방문시, IMF에 기존 32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증액된 48억 달러 차관을 공식 요청
 - 이집트 재무장관은 IMF와 38개월 거치, 5년 상환, 이자율 1.1%로 차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
- 2011년 7월부터 진행된 IMF 차관 협상은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일부 정치 세력들의 반대여론으로 정부와 하원간 의견이 양분
 - 2012년 3월 사아드 알-후세이니(Saad El-Husseini) 자유정의당(FJP) 의원은 IMF 차관은 최후의 방안이며, 수쿠크 발행,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의 자금 조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이후 4월 자유정의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IMF 차관을 위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치안 강화, 빈부격차 해소, 임금 인상 등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반대하였으나, 8월 26일 성명을 통해 IMF 차관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며, 간접적인 찬성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② 세계은행(WB)

- 2012년 8월, 이집트 재무장관은 세계은행에서 이집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억 달러 차관 제공을 승인했다고 발표
- 이집트 하원 일각에서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차관의 이자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자는 이슬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음

- 세계은행은 이집트의 에너지, 교통, 수자원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까지 약 40억 달러를 지원해 왔음
- 그간 이집트 군 최고위원회(SCAF)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차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약 20억 달러의 추가 지원 자금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무르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세계은행의 지원이 본격 재개되고 있음

③ 석유수출기구(OPEC)

- 9월 11일 OPEC 국제개발기금(OFID)은 이집트 관개 인프라, 식량 확보,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3,000만 달러의 차관(5년 거치, 20년 상환) 제공에 합의

1. 이집트 경제 동향

□ 경제 성장

- 이집트 경제는 국제 식량가격 상승,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2004년 이래 매년 4% 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보여 왔음
- 2011년 1월 민주화 운동 이후 외국인 관광객 급감, 외국인 투자 위축 및 국내 산업 생산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여 2010/2011년 경제성장률 1.8%로 하락
- 2011년 7~12월 경제성장률은 0.3%로 악화되었으나, 개인 소비 및 공공지출의 증가 등에 힘입어 2012년 1~3월에 5.2%로 회복세로 전환
- 무르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집트 정부는 사회 안정 및 경제 재건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 일정(신헌법제정, 하원 선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집트의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세계은행	4.7	5.0	1.8	2.1	3.1	4.2
IMF	4.7	5.1	1.8	1.5	3.3	-

자료원 : 세계은행 Global Economic Prospects(2012.6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2.4월)

□ 물가

- 이집트 소비자 물가는 2008년 8월(전년도 대비 23% 상승)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2012년 7월 6.4% 기록

- 오락, 여가, 문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물가 상승이 둔화되었으며, 특히 식품 가격의 안정이 크게 기여(빵 및 시리얼 -7.3%, 유지류 1.6%, 설탕 1.3%)

[물가 상승률 현황 및 전망]

(단위 : %)

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7
IMF	16.2	11.7	11.1	9.5	12.1	7.0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2.4월)

□ 국제수지

- 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서비스 수지 적자 및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2011/2012년 이집트의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도 60억 8,000만 달러에서 79억 3,000만 달러로 적자폭 확대
- 대외 수입은 8.5% 증가한 587억 달러, 수출은 전년도 수준인 270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31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
- 동 기간중 해외 근로자의 이집트 국내 송금액은 178억 달러로 전년동기 124억 달러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수에즈 운하 수입은 약 1% 증가한 52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관광수입은 94억 달러로 전년대비 11.2% 감소

[경상수지 현황]

(단위 : 억달러)

구분		2009/2010	2010/2011	2011/2012
무역수지		-251.2	-271.0	-316.9
	수출	238.7	269.9	269.8
	수입	489.9	540.9	586.7
서비스수지		103.4	78.8	53.6
이전수지		104.67	131.4	184.0
경상수지		-43.2	-60.8	-79.3

자료원 : 이집트 중앙은행

□ 실업률

-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2/4분기 실업률이 12.6%(약 340만명)로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
 - 실업인구 중 77.5%가 청년실업(15세-29세)에 해당되며, 실직자도 26.3%를 기록
- 이집트의 노동인구는 높은 인구 증가율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기준 2,683만명으로 전년대비 2.1%(약 55만명) 증가
 - 2012년 8월 이집트 총 인구는 9,100만명(국내 8,300만, 국외 800만명)으로 집계

□ 환율 및 외환보유고

- 이집트 민주화 운동 이후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자본의 해외 유출로 인해 이집트 파운드화 약세가 지속
 - 2011년 12월 달러당 6.0 파운드(EGP)를 넘어선 이래 2012년 9월 6.10 파운드대 유지
- 외환보유고는 2012년 3월 이후 사우디, 카타르 등 해외 경제 원조로 150억 달러 수준을 유지

[외환 보유고 현황]

(단위 : 억달러)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외환보유고	163.5	157.2	151.2	152	155.2	155.3	144.2	151.3

자료원 : 이집트 중앙은행(CBE)

- 라니아 알-마샤트(Rania A. Al-Mashat) 이집트 중앙은행 부총재는 당초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가 15~20%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달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 역시 향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

-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폭은 11%로 170억 파운드

(EGP)를 기록하여 당초 목표치인 8.2%를 상회

- 동 기간 재정수입은 총 2,986억 파운드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세금수입 부분이 2,072억 파운드로 전체의 69.4% 차지
- 반면, 재정지출은 사회복지 지출(32.3%), 에너지 보조금(62.8%) 등으로 총 4,693억 파운드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

[이집트 2011/2012년 재정 분석]

(단위 : 백만파운드, %)

항목		2010/2011년 재정	2011/2012년 목표 재정	2011/2012년 실제 재정
총수입	총합	265,286	349,647	298,600
	세금수입	192,072	232,232	207,262
	수에즈운하 통행료	3,065	-	3,173
	관광업	6,451	-	5,739
총지출	총합	401,866	476,290	469,363
	사회 복지 지출	123,125	154,454	151,989
	에너지 보조금	67,680	95,535	95,535
GDP 대비 재정적자폭		10.0	8.2	11.0

자료원 : 이집트 재정부, 이집트 중앙은행

주) 총수입/총지출의 총합 밑의 세부 항목은 일부를 발췌

- 7월 10일 이집트 중앙은행은 2012년 3월말 기준 대외 채무가 334억 달러로 2011년 12월에 비해 4.3%(약 15억 달러) 감소했다고 발표

[대외 채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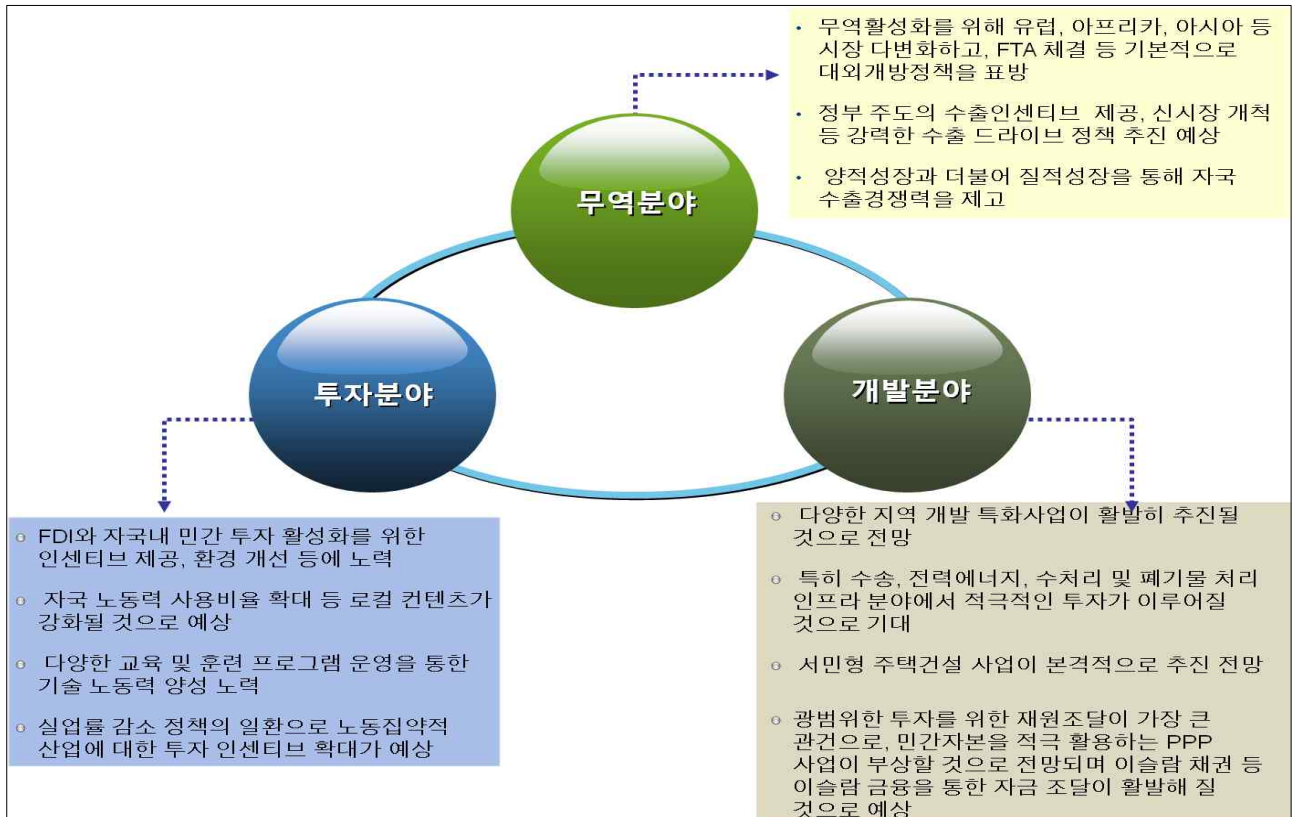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연도	2008.6월	2009.6월	2010.6월	2011.6월	2012.3월
금액	33,893	31,531	33,694	34,906	33,422

자료원 : 이집트 재정부, 중앙은행

2. 진출환경 전망

[분야별 진출환경 전망]



□ 무역 분야

- 이집트 신정부는 경제성장 촉진 방안으로 산업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대외개방경제를 표방
 -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자국 산업 육성
 - 아랍,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 시장과 무역 활성화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시장 다변화 추구
- 자국 기업에 수출 인센티브 제공, 정부 주도의 신시장 개척, 자국 기업 제품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수출비용 인하 등 다양한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수출 증가율 연 20% 이상을 목표로 함
 - 특히 2016년까지 기술 분야를 전체 수출 분야의 15%까지 확대하고, 자국생산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여 무역적자폭을 축소할 계획

-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수출은 민주화 운동 발생 시기였던 2011년 -22.9% 감소한 17억 2,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정세가 안정되기 시작한 2012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띄며 11억 2,600만 달러를 기록

[對이집트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1-8월
수출(증감률)	1,548(32.7)	1,528(-1.3)	2,240(46.6)	1,727(-22.9)	1,126(2.2)
수입(증감률)	1,331(116.8)	463(-65.2)	938(102.5)	691(-26.3)	618(28.8)
무역수지(증감률)	217(-60.7)	1,065(390)	1,303(22.3)	1,036(-20.5)	508(-)

자료원 : 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對이집트 주요 수출입품목

- 수출품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변압기, 평판디스플레이 등
- 수입품목 : 나프타, 천연가스, 천연섬유원료 등

[對이집트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4단위)	품목명	2011		2012(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7411	승용차	418,590	-28.1	245,148	14.0
2	7420	자동차부품	168,294	-32.4	123,718	34.5
3	2140	합성수지	151,548	2.4	99,788	-4.1
4	7133	가열난방기	25,634	126.2	64,661	41,986.2
5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39,115	-4.3	43,462	62.9
6	8361	평판디스플레이	37,953	19	32,253	12.8
7	6152	철구조물	34,986	209.4	25,782	78.3
8	7111	원동기	25,320	-44	25,187	-18.3
9	4342	폴리에스터직물	22,819	68	23,709	111.2
10	7512	밸브	4,925	-30.5	20,802	1,177.0
총계			1,726,874	-22.9	1,126,471	2.2

자료원 : 무역협회

[對이집트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4단위)	품목명	2011		2012(1월~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1340	천연가스	290,381	-24.3	357,659	119.2
2	1334	나프타	325,908	-32.5	202,036	-28.1
3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1,879	-	29,373	-
4	0135	박류	10,466	51.5	5,056	-43.2
5	4411	편직제의류	4,677	18.6	3,250	3.3
6	0191	천연섬유원료	6,647	42.5	2,937	-43.4
7	0151	커피류	3,153	12	2,233	21.4
8	8361	평판디스플레이	492	300,103.70	2,107	19.8
9	1290	기타비금속광물	2,150	15.1	1,695	-
10	6221	동괴및스크랩	3,371	345.5	1,445	-57.1
총계			690,854	-26.3	618,412	28.8

자료원 : 무역협회

- 2011년 기준 이집트의 총 대외교역량 895억 5,100만 달러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20억 8900만 달러로 전체의 2.33%를 차지
- 반대로 2011년 우리나라 총 교역량 1조 796억달러에서 이집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억 달러로 0.22%를 차지(제49위 교역상대국)

[이집트 주요 교역 대상국]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가	수출	수입	교역규모
1	미국	1,596	6,308	7,904
2	중국	603	5,386	5,989
3	이탈리아	2,670	3,000	5,670
4	독일	770	3,735	4,505
5	사우디아라비아	1,880	2,528	4,408
6	터키	1,512	2,582	4,094
7	인도	2,246	1,538	3,784
8	프랑스	1,280	1,963	3,243
9	쿠웨이트	253	2,785	3,038

10	러시아	352	2,145	2,497
11	브라질	271	2,144	2,415
12	스페인	1,291	1,049	2,340
13	네덜란드	699	1,630	2,329
14	영국	961	1,175	2,136
15	한국	432 (1.41%)	1,657 (2.81%)	2,089 (2.33%)
16	우크라이나	112	1,799	1,911
17	벨기에	564	1,293	1,857
18	일본	361	1,313	1,674
총 교역규모		30,611	58,940	89,551

자료원 : 이집트 산업통상부 EITP

주) 2011년 기준

[이집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명칭	발효일	주요내용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12.8	- 아프리카 최초, 최대의 경제공동시장(인구 3.8억명) - 회원국 : 동남아프리카 21개국(남아공은 옵저버) - 회원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범아랍 자유무역협정 (PAFTA)	1998.1.1	- 회원국 : 아랍연맹 17개국 - 이집트는 걸프 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 국가별 관세부과 및 면제대상 상이
EU-이집트 연합협정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6.1	- 15개 EU 회원국과 이집트간 FTA - 이집트, 對 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 EU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 점진적 인하 및 철폐(자동차 관세 2019년까지 연 10% 씩) - 농산품 일부 쿼터해제 및 관세인하 또는 철폐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1.1.	-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간 협약 - 이집트가 국내산 원부자재 35% 이상,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 이상 사용시 對미 무관세 수출 가능 (기존 11.7%에서 2008.1.1부 10.5%로 변경) - 이집트내 QIZ 수혜기업은 500여개, 2011년 이집트 QIZ의 對미 수출액은 103억 달러 - USTR은 이집트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 지정, 2005.12월 4번째 QIZ로 중앙델타지역을 지정
Agadir 협정	2006.7.1	- 회원국 :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 농산품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EM FTA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 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터키 FTA	2007.3.1	- 對터키 수출 :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 - 對이집트 수출 : EU-이집트 FTA에 준하여 4개 품목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EFTA FTA	2007.8.1	- EFTA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對 EFTA 수출 :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철폐 - 對 이집트 수출 :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남미 공동시장 (MERCOUR)	2010.8.2 (서명)	- MERCO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육류, 밀, 옥수수 등에 대해 즉시 관세면제 - 우유, 산업제품 : 4년내 관세 면제 - 기타 협상 품목 : 8~10년 후 관세 면제 - 2012.9월 현재 미발효
아프리카 대자유 무역협정 (African Grand FTA)	2011.6.12	- COMESA,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EAC(동아프리카공동체)간 FTA - 인구 5.5억명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57% 시장 - 아프리카 전체 GDP의 58%(8,300억불) - 26개국 정상간 창설 합의
아프리카 FTA	논의중	- 2011.12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통상장관회의시 20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2019년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이집트는 동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적

□ 투자 분야

- 무르시 대통령은 핵심 공약으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부분의 역할과 투자를 강조하였는 바,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
- 피고용인 권리 개선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산업·기술학교 및 직업훈련센터 설립,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장려 등을 통해 실업률 제고와 기술인력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기대
- 반면,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자 권리 보장,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만큼의 최저임금 보장 등 친노동자 정책을 추진할 경우, 현지 및 외투기업을 포함한 경영자들의 애로가 예상

- 무르시 정부는 FDI 유치 확대를 위해 특별자유구역(SEZ)을 확대할 계획이며, 투자기업 설립 절차 완화, 금융지원 확대 및 기술 제공 등 다양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무르시 정부는 이집트를 투자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
- 한국의 對이집트 투자는 1980~2011년 말까지 투자건수 누계로 187백만 달러를 기록
- 신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도 예상됨에 따라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분야와 하수처리, 담수 등을 포함한 수처리 분야가 투자 유망 분야로 전망

[2012년 주요 신규 투자 현황]

- 삼성전자, 이집트 베니수에프(Beni Suef)에 TV 공장 설립 -

- 삼성전자는 9월 11일에 베니수에프주(州)와 공장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TV 공장 설립을 추진
- TV 생산공장은 카이로 남쪽 90km에 위치한 베니수에프주 와스타시(市) 인근 콤 아부 라디(Kom Abu Radi) 공단에 366,000㎡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2013년 상반기 가동을 시작해 향후 5년 내 연간 2백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삼성전자는 이번 공장 설립 배경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TV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투자진출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의 對이집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중동·아프리카 평판 TV 시장 점유율]

브랜드	국적	2010	2011	2012(상반기)
삼성전자	한국	39.1%	40.7%	45.4%
LG전자	한국	22.9%	22.6%	24.2%
Sony	일본	15.5%	14.3%	11.2%
Hisense	중국	2.6%	3.1%	3.3%
Panasonic	일본	6.6%	5.5%	3.2%

자료원 : 디스플레이서치

□ 지역개발 분야

- 무르시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산·서비스 부문의 광범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 지방정부 사업으로 약 5억 달러 규모의 1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이옴주(州) 소금 산업, 동부나일주에 시멘트 사업, 소하그주에 인산비료 및 마그네슘 비료 생산단지 건설 등 추진 중
 - 지역별로는 북서연안(자원·관광), 시나이(자원·산업단지 조성), 이스마일리아(첨단기술), 포트사이드(물류기지), 사파가(광물항 개발), 다미에타(항만 확장), 알렉산드리아(관광용 항만 터미널 개발) 등 지역 특화 사업을 실시할 전망

○ 주요 개발 분야

- 교통 : 교통 발전 정책을 수립, 도로, 철도, 항만 등 운수송 인프라 사업 추진 예상
- 전력 : 전력 에너지 산업에 매년 40억 달러 투자를 계획
- 수처리 : 식수망 개발 및 수질 개선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1,300억 파운드(약 214억 달러) 투자를 계획, 환경오염 개선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사업이 적극 추진될 기대
- 광산업 : 석회석, 대리석, 금, 인산염, 철, 실리카 등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
- 주택 : 저소득층 주택건설 사업 본격 시행

□ 주요 개발 프로젝트

① 철도 프로젝트

- 이집트 교통부는 카이로-알렉산드리아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무르시 대통령의 8월 중국 방문시 동 사업에 대해 중국측과 협의를 한 바 있음
 - 교통부 장관은 동 프로젝트가 국제 공개입찰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집트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연장사업(1호선과 연계 추진)은 EU의 지원을 받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경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
- 카이로 메트로 4호선 사업은 일본이 부분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제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

② 수에즈 운하 종합개발 프로젝트

- 신정부는 2027년 완성을 목표로 테크노 밸리 및 자유무역지대(FEZ) 설립을 포함하는 수에즈 운하 종합개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
- 9월 2일 주택부, 교통부, 투자부 장관이 회동하여 동 프로젝트의 액션 플랜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협의

[수에즈 운하 종합개발 프로젝트 개요]

분야	내용
농업 및 개간	■ 수에즈 운하 동부 토지 개간 사업(74,000 에이커 규모) ■ 수에즈 및 포트사이드 지역 양식장 개발 사업
산업	■ 제 1단계 테크노 밸리 조성 공사 (3,200 에이커 규모) ■ 칸타라(Qantara) 및 포트사이드 지역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 수에즈 및 포트사이드 지역 선박 및 컨테이너 조립·정비센터 설립 ■ 포트사이드 산업단지 조성 ■ 포트사이드 동부 산업대학, 과학 및 의학 도시 건설
무역 및 운송	■ 국제무역 연구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 센터 설립 ■ 수에즈 및 이스마일리아 지역 자유무역지대 조성 ■ 포트사이드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 칸타라 산업단지, 선박 및 컨테이너 조립공장 확장 ■ 포트사이드 동부 투어리스트 센터 설립
에너지	■ 수에즈 북부 태양열 발전소 2기 건설 ■ 수에즈 북부 풍력 발전소 건설

③ 전력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 이집트는 여름철 전력사용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2012년 여름철 전력 소비량이 전년대비 12% 증가함에 따라, 총리실은 산하에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전력난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에 착수

- 이집트 전력지주회사(EEHC)에 따르면, 2013년 전력 부족량은 3,250M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난 해소를 위해 총 175억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
- 2012년 8월 기준 전력 부족량은 3,000~4,000MW이며,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유지보수 미흡, 필요한 스펙 이하의 연료유(Mazut) 장기간 사용 및 에어컨 사용 등 수요량 급증이 원인
- 전력에너지부는 2013년 아인 스쿠나(Ain Sukhna), 반하(Banha), 아부 카이르(Abu Qir) 발전소를 가동하여 3,000MW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발전소 건설을 계획
- 무르시 대통령은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의 엘-다브아(El Dabaa)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발표를 계획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시민혁명 이후 정권 교체기에도 일관되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방침을 유지

④ 담수화 프로젝트

- 이집트 상하수도지주회사(HCWW)는 지중해 및 홍해 연안의 담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담수화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예산 제약으로 이집트 정부는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유럽투자은행(EIB) 등 국제 금융기구 및 독일 등 주요국들로부터 저리 유상차관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⑤ 시나이 반도 개발 및 항만 확장 프로젝트

- 이집트 정부는 시나이 반도 내 테러 해소 및 치안 확보를 위해 시나이 반도 산업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시나이 개발청(Sinai Development Authority)을 설치
- 이집트 교통부는 2011년 민주화 혁명으로 중단된 포트사이드, 다미에타, 아인 쇼쿠나, 알렉산드리아 4개 항만의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

3.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의 진출환경 전망

회사명	범한판토스	담당자	김광채
직위	지점장	분야	물류
주요 의견			
■ 이슬람 기반의 정권이 등장함에 따라, 對미 관계 악화시 미국의 금융원조가 중단될 우려가 있음 ■ 對미 관계 악화가 이집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큼에 따라, 향후 무르시 정권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이 파기될 경우,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는 자사로서는 해외 영업에 큰 차질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르시 정권의 대외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 ■ 향후 헌법제정, 총선 재 실시 여부 등 정치적 일정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			

회사명	삼성물산(건설부문)	담당자	이창열
직위	지점장	분야	건설
주요 의견			
■ 대통령 당선과 신정부 구성에 따라 민주화 운동 당시 급격히 악화된 치안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프로젝트 분야에서 결정권자 부재 등으로 지연되어온 대형 프로젝트의 재개 및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 ■ 군부와 마찰 등 신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등 향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			

회사명	삼성엔지니어링	담당자	윤성만
직위	지사장	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주요 의견			
■ 무르시 대통령의 공약대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이집트 경제상황 및 대내외적 여건상 단기적으로 국책 사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국가정책 결정 주체가 정식으로 들어섬에 따라 지연되어온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집트 정부 재정여건상 민간투자 사업의 형태로 활발히 진행될 전망			

회사명	OCI상사	담당자	구사회
직위	지사장	분야	종합무역(화학 중심)
주요 의견			
■ 사업재개를 위해서 치안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신정부 구성과 함께 정권이 안정되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아직 주요 정치 일정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12년내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회사명	El Sherouk Trading	담당자	Tarek Khaled
직위	Owner	분야	의료기기
주요 의견			
■ 무르시 대통령은 이집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전망 ■ 이를 통해 단기간 내 이집트 경기부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국책 사업이 실시될 전망			

회사명	Pico Engineering	담당자	Bassem Makar
직위	Managing Director	분야	기계
주요 의견			
■ 신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국책사업이 실시될 것이며, 그동안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사업이 재개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자재 및 기계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회사명	Societe Francaise De Voitures	담당자	Emad Iskandar
직위	General Manager	분야	자동차
주요 의견			
■ 무르시 당선에 따라 각종 프로젝트 시행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군부와 신정부와의 갈등관계 조성, 무르시 반대파(샤피크 지지) 세력의 시위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어 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			

회사명	Agritech Egypt	담당자	Nabil Sharaf
직위	Owner	분야	섬유 기계
주요 의견			
■ 무르시 대통령 당선 이후 이집트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집트 경제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등 향후 이집트 경제 활성화가 기대 ■ 내각 구성과 함께 이집트 경제는 더욱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			

IV

시사점

□ 신정부 수립 이후 정치·경제 안정화 기대 및 불안요소 상존

- 무르시 정부는 치안 회복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치안 회복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그간 국가 공식 정책 결정권자의 부재에 따라 각종 국책 사업 및 IMF를 비롯한 해외 차관 수용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어 왔으나, 신정부 수립 후 가시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지연 사업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향후 무르시 정권이 군부와의 마찰 없이 권력이양을 완수할지 여부와 신 헌법 제정 및 총선 완료에 따른 신정부 정착 과정이 이집트 정치·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또한 반미감정 해소, 세속주의 지지세력(샤피크 및 군부 지지세력) 및 시민 혁명을 주도했던 민주화 세력 등이 정정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

□ 이집트 신정부의 대외정책이 변수

-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자유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르시 대통령을 축하하고, 이집트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을 보임
- 다만, 이스라엘과 체결한 평화협정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입장이 변경될 경우 미국과의 관계 악화 및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 관계 조성 등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집트의 대외 정책에 모니터링이 필요
- 무르시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시사한 바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지향적 외교에서 아랍 및 신흥국가와의 외교관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미국과 EU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감안하여 점진적인 대외정책 변화가 예상

□ 대외개방정책과 투자환경 개선이 진출기회로 작용

- 무르시 정권은 아랍,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국들과 교역 확대를 통해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대외개방 정책을 표방할 전망
- 대외교역환경 개선으로 이집트의 거대한 내수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시 재원 조달 문제

- 향후 이집트 경제재건을 위한 사업 기회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주화 운동 이후 떨어진 이집트 국가 신용도, 정부의 재정적자 심화 및 외환보유고 하락, 민간경제 취약이 무르시 정부의 경기부양 사업에 제약 요소로 지적
- 무르시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경기부양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 세수 증가, 수에즈 운하 수입 증대 및 이슬람 금융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
- 무르시 정부는 작은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강조해 온 점에서 혁명 이후 모멘텀을 상실했던 이집트 민관합동투자(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
- 이와 더불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이슬람 금융 도입 및 수쿠크 발행 등을 실시할 전망이나, 정부의 가용재원 부족, 지급보증 등과 같은 투자자 보호책 및 인센티브 미흡, 글로벌 경제 악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PPP를 통한 사업은 단기간 내 추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

□ 무르시 정부에 대한 이집트 국민들의 평가는 아직 유보적

- 일부 언론에서는 무르시 대통령이 제시한 64개 공약의 이행도가 낮은 것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일반적인 여론은 정책 실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취임 100일 이후부터는 취임 초기 내세웠던 5대 과제 등에 대한 이행 성과, 신 헌법 제정에 대한 평가 등이 제기될 전망

- 이집트 공공 여론조사 센터가 8월 30일 전국 1,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가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13%는 반대한다고 답하였음
- 무르시 대통령이 무슬림형제단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군부와의 권력 공유 등 당초 정권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에 비해 군 수뇌부의 해임 조치 및 국제사회에서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이집트 국민들에게 신정부를 각인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끝.



작성자

◆ 카이로무역관 김효근 과장

◆ 신흥시장팀 김경운



Global Market Report 12-063

이집트 신정부 수립 100일 이후 경제 및 진출환경 전망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2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